

티셔츠도 신발도 썩어야 합니다

조선경제 뉴스(2022. 3. 24.)



갈수록 거세지는 친환경 소비 트렌드에 따라 최근 국내외 패션·의류, 생활용품 업체들은 생분해 제품 시장에 미래성장성을 보고 뛰어 들고 있다.

- 최근 국내외 패션·의류, 생활용품 업체들이 땅에 묻으면 100% 썩어 사라지는 생분해(生分解) 섬유로 만든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 (노스페이스) 작년 말부터 생분해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만든 스웨트셔츠와 외투에 이어, 올해 봄에도 티셔츠와 가방 등 7개 품목을 생분해 소재로 제조
- (LAR) 재생 플라스틱 섬유와 생분해 소재 밀착을 적용해 운동화를 제작하였으며, 이 제품은 일반 운동화보다 100배 빨리 썩는 특징을 가짐
- (랄프로렌) 생분해가 되는 천연 기능성 섬유로 만든 폴로 셔츠를 국내에 판매하기 시작, 보통 땀을 빨리 흡수하고 빨리 마르는 기능성 원단은 대개 합성섬유를 기반으로 완성되지만, 천연섬유인데도 합성섬유의 기능을 발휘

생분해 섬유 쓰는 업체들

| | |
|---------|--------------------------------|
| 프라이탁 | 100% 썩는 티셔츠·바지·점프 슈트 판매 |
| 랄프 로렌 | 생분해되는 기능성 천연 소재 셔츠 출시 |
| 노스페이스 | 생분해 폴리에스테르·메리노 울로 만든 의류와 신발 출시 |
| 조셉앤스테이시 | 생분해 폴리에스테르 소재 가방 출시 |
| LAR | 일반 신발 밀착보다 100배 빨리 썩는 밀착 적용 |
| 수트서플라이 | 정장 소재의 80% 이상을 생분해 원단으로 사용 |

- 최근 소파나 텐트까지도 생분해가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지는 추세로, 국내 업체 코레쉬텍은 100% 식물에서 추출한 생분해 소재를 최근 장난감과 텐트에도 적용한 제품을 판매
- 가구업체 '바치 포 드웰링(BFD)'은 국내 업체 '하운지'가 만든 생분해 소재를 활용한 소파를 제작하였으며, 일반 합성섬유 소파보다 생산비가 비싸지만 매출이 늘고 있으며, 소각해도 독성이 나오지 않아서 더욱 인기
- 전 세계적으로도 생분해 섬유 시장은 팽창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인더스트리마켓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생분해 섬유 시장은 해마다 11%씩 성장, 2027년엔 5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
- 10년 전부터 생분해 원사를 생산해 온 섬유업체 휴비스의 경우 올해 국내 시장에서만 생분해 폴리에스테르 섬유 '에코엔'을 3500t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

